

漢魏六朝 哀悼文 변천을 통해 본
고대 중국 문인들의 감정구조 소고
— 《文選》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

이 수 정*

<目次>

- | | |
|-----------------|--------------------|
| I. 서론 | IV. 죽음과 애도 관념의 다양화 |
| II. 공적 기능의 약화 | V. 결론 |
| III. 개인 주체성의 부각 | |

I. 서론

고대로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공자(孔子)의 “삶도 모르거늘,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不知生, 焉知死.)”라는 구절의 파급력으로 인해서인지 상대적으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소극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고대 중국의 애도 방식은 상고시대부터 이미 존립해왔으며 그 방식도 십여 종류나 될 정도로 비교적 다양하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중국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갖추어졌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죽음과 애도에 대한 유례없는 관심을 방증한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애도문¹⁾ 작품이다. 예로부터 존재해온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애도를 주제로 한 작품을 ‘애도문’으로 통

애도의 기록은 크게 석각을 통한 기록과 시·산문 등의 창작을 통한 애제류(哀祭類) 문장으로 나뉜다. 석각 기록은 노역 등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정보를 간단히 기록한 벽돌에서부터 사후세계관에 따라 출현한 일종의 토지 매매 문서인 매지권(買地券), 저승의 지하 관리 또는 지하신(地下神)에 전달하는 호적과 물자의 명세서인 고지책(告地策), 죽은 자들의 혼백을 달래고 귀신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등장한 진묘문(鎮墓文)과 진묘석(鎮墓石), 망자의 공적을 후대까지 선양하기 위한 묘비(墓碑), 묘지(墓誌), 왕족의 죽음을 기리는 애책(哀策) 등이 대표적이다. 애제류 문장은 주대(周代)에 시호(諡號)를 주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뇌문(誄文), 시법(諡法)이 간소화하면서 출현한 애사(哀辭), 고인을 조문하며 애도의 견해를 표하는 조문(弔文), 신에 대한 제사와 인간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 활용되는 제문(祭文), 운구 시 상여꾼들이 부르던 만가(挽歌) 등이 대표적이다.

유구한 역사와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현전하는 애도문 작품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애도 관련 작품은 이르게는 《시경(詩經)》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²⁾ 조조(曹操)의 《전론(典論)·논문(論文)》, 지우(摯虞)의 《문장유별론(文章類別論)》, 유협(劉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 소명태자(昭明太子)의 《문선(文選)》, 육기(陸機)의 《문부(文賦)》 등 여러 문체론서(文體論著)와 문체의 창작 특징을 제시한 일부 기록을 통해 애도문의 존립 양상과 그 역사적 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애도문은 인간 삶에 밀착하여 오랜 세월 존속해왔다.

그런데 애도문은 실제 장례 현장에 활용되거나 형식 절차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고착되면서 그것의 문화적·문학적 가치보다는 줄곧 실용과 관습의

알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본론에 제시될 애도문은 뇌문(誄文), 비문(碑文), 제문(祭文)이 중심이 된다. 사실 뇌문과 제문은 기록 문서이고 비문은 석각 문서임을 고려할 때 이를 애도문으로 통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각 문체 특징의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감정구조라는 문화 이론의 관점에 따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상기한 기록물을 ‘애도문’으로 통칭하였다.

2) 〈황조(黃鳥)〉와 〈이자승주(二子乘舟)〉 등이 대표적이다.

제한된 담론 속에 머물렀다. 시대에 따른 문장 고유의 특징이 관습과 실용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 일반화되어 다각적인 논의와 그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위육조 시대의 애도문은 당송(唐宋) 이후 왕성해진 애도문 창작 환경 및 문화와 감정구조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³⁾ 그 변천과 발전사에 집중해보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⁴⁾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애도문 창작 초기인 한대부터 문학의 서정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육조시대 작품의 변화상에 주목하고 이들이 애도문 변천의 일단을 보여준다면 이는 곧 고대인들의 감정구조 변화 내지 다양화하는 흐름 양상도 함께 반영해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한다.

여기서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s)란 영국의 비평가인 레이먼드 윌

-
- 3) 이는 고대 중국 애도문의 창작 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례로 고대 중국의 애도시는 당대(唐代) 이전까지 채 백 여수도 되지 않다가 당대를 기점으로 600여 수가 창작되었다. 내용과 표현은 기존에 비해 다양화되었지만, 작품 곳곳에 기존 애도문의 창작 특징을 계승한 흔적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수정, 《唐代 哀悼詩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참조.
- 4)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고대 중국의 애도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국내의 경우 국문학계에서 한국 애도 시문에 관한 연구가 일정부분 이루어져 있으나, 중문학계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혜영, 〈죽음에 대한 문학적 관조-위진 만가시의 특성과 문학적 의의〉, 《중국문화연구》 제12집, 2008. 주기평, 〈中國 挽歌詩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한 一考察〉, 《中國文學》 제60집, 2009; 〈한·중 悼亡詩의 서술 방식과 상징체계〉, 《大東漢文學》 제32집, 2010; 〈中國 歷代 悼亡詩歌의 社會文化的 배경과 文學藝術的 특징 연구〉, 《中國文學》 제96집, 2018. 신민야, 〈元稹 悼亡詩의 표현기법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77집, 2012. 윤재석, 〈중국 고대 『死者의 書』와 漢代의 來世觀-告地策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86집, 2014. 이성구, 〈漢代의 死後世界觀〉, 《중국고중세사연구》 제38집. 양진성, 〈梁代 奉勅撰墓誌를 통해 본 墓誌銘의 定型化-墓誌에 등장하는 王言文書 運營方式의 分析을 兼하여〉, 《中國史研究》 제105집, 2016. 모두 고대 중국 애도 시문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결과물로 높은 학술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된 결과물에 기초하여 기획되었다.

리엄스(Raymond Williams, 1921~1988)⁵⁾의 문화 이론을 참조한 것이다. 그는 텍스트와 역사, 사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늘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관관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왔다.⁶⁾ 감정구조는 곧 한 시대의 공통 문화로서, 하나의 문화권 속에 공존하는 공동체의 소통을 원활히 유도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소통의 매개로서 문학 창작을 통해 형성된 문화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감정구조라면, 그 변화의 지점을 살피는 일은 곧 인간의 다양화된 감정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변화된 공동체의 문화상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⁷⁾ 그렇다면 감정구조의 관점에 따른 한위육조 애도문 변천의 분석은 단순히 대상 텍스트의 문학적 특징 일면을 탐색하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애도 형상화 과정을 거치며 고대인들의 감정구조와 결부됐는지 파악해낼 수 있는 면에서 발전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시대별 고유의 애도문 특징이 죽음과 애도에 직면한 초기 고대인들의 감정구조 흐름의 윤곽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명태자의 《문선》에 수록된 작품을 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는 첫째, 한위육조 시대의 애도문을 단기간 내에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기인하며, 둘째, 《문선》에 수록된 애도문이 유형별·시대별로 체계화되어있다는 점, 셋째, 《문선》이 출현한 시대가 남북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위육조 애도문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적합한 자료라 판단했기 때문이다.⁸⁾

5) 레이먼드 윌리엄즈는 영국의 문화이론가로 노동 계급이 일궈놓은 문화 업적에 대한 평을 긍정적으로 돌려놓았으며, 소위 문화 연구의 전통 속에서 문화주의로 분리되는 중요한 연구 영역을 확립하는 데 공헌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레이먼드 윌리엄즈, 설준규, 송승철 역, 《문화사회학》, 서울: 까치, 1984; 레이먼드 윌리엄즈,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과주: 문학동네, 2007 참조.

6) 같은 책, 527쪽.

7) 이수정, <고대 중국의 가족 서사와 변화된 감정구조>, 《중국학》 제84집, 2023, 206쪽.

《문선》에 수록된 애도문은 크게 뇌문, 애책, 비문, 묘지, 조문, 제문으로 나뉜다. 물론 문체별로 요구되는 창작기준과 방향성은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문학적 특징을 일일이 도출해내는 작업 대신 이들이 창작된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애도문 변천의 과정을 살피어 고대인들이 공유했던 감정구조를 규명하려는 작업은 실용과 관습의 영역에 머물렀던 애도문이 어떤 방식을 통해 전진해왔는지에 관한 과정의 일단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공적 기능의 약화

한대에서 육조시대로 향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바로 애도 대상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른 시기의 애도문이 신과 같은 경외의 대상을 중심으로 창작되었다면 유가 이념을 기반으로 인문 정신이 싹트기 시작한 한대에는 공적인 인물, 이를테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나 후세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 등이 애도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전하는 가장 초기의 애도문은 노(魯) 애공(哀公)이 지은 <공자퇴(孔子誄)>이다.⁹⁾ 유가의 대표 인물인 공자의 죽음을 애도한 기록으로 원문은

-
- 8) 이러한 제한된 작품 선별은 특정 문체의 특징을 도출할 때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되, 감정구조의 관점에서 애도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려는데 초점이 놓이는 만큼 《문선》에 채택된 작품의 유형별·시대별 양상이 한편으론 편찬자의 선별 기준 및 당시 사람들의 애도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구조까지 엿볼 수 있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 9) 뇌문은 여러 애도 문체 중 가장 먼저 성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현전하는 초기 애도문 대부분은 뇌문에 속하며, 이를 기점으로 애사, 조문, 제문, 묘비명, 묘지 등 여러 문체가 파생되는 발전사를 보인다.

겨우 서른 글자에 불과한 단편이지만¹⁰⁾ 인재의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심경이 잘 드러난다. 〈유하혜뢰(柳下惠誄)〉 역시 초기 애도문으로 춘추시대 노나라 현자인 유하혜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그 후로 창작된 한대의 애도문도 공적 이익을 선양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소순(蘇順)의 〈화제뢰(和帝誄)〉, 양웅(揚雄)의 〈원후뢰(元后誄)〉, 두독(杜篤)의 〈대사마오한뢰(大司馬吳漢誄)〉 등을 들 수 있다. 왕족과 개국공신 등 특정한 공적 인물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초기 애도문의 상당수가 공적인 인물 애도에 치중된 것은 그것이 예절 의식의 일부로 상정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유협은 《문심조룡·뇌비(誄碑)》에서 뇌문의 문체 개념과 엄격한 창작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뇌란 ‘누(累)’의 뜻과 같다. 죽은 자의 평소 덕 있는 행동에 대해 기록을 누가(累加)해 그러한 공적을 표창함으로써 영원히 전해지게 하는 것이다.”¹¹⁾ 후세에 전해질 가치가 있는 인물을 선별하여 공적을 선양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신분이 낮은 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위해 뇌문을 지을 수 없고, 나이가 어린 후배는 연장자를 위해 뇌문을 짓지 않는 것이 올바른 예의라고 할 수 있다.”¹²⁾라는 뇌문 창작자에 부여된 엄격한 규율은 자연스레 공적인 인물만을 애도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애도문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나라 멸망 이후 위진 남북조로 넘어오면서 엄격했던 애도문 창작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류가 일기 시작한다.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문인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시법이 간소화되고 후장(厚葬) 풍습

10) “하늘이 가엽게 여기지 않으시어 이 하찮은 마음 살피지 않으시고 한 노인을 버리셨으니, 나 홀로 남게 하여 나를 외롭게 하시는구나! 아아, 슬프도다. 공자여! (昊天不吊，不來犬心遺一老，俾屏予一人以在位，癸癸予在疚！嗚呼，哀哉，尼父!)”

11) “誄者累也，累其德行，旌其不朽也。” 유협, 성기옥 역, 《문심조룡》, 서울: 지식의 만드는 지식, 2012, 81쪽.

12) “賤不誄貴，幼不誄長。” 같은 책, 81쪽.

의 폐해를 줄이고자 금비령(禁碑令) 등이 실시되었던 정책적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도 기존 왕조가 붕괴한 혼란한 시대 속 죽음과 애도에 관한 고대인들의 관심이 자연적으로 증폭되었던 시대상과도 연관이 있다.

위진 남북조의 애도문은 기존 양식을 일부 답습하면서 공적인 인물에 애도의 대상으로 출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주변 인물이나 친족의 죽음을 애도하려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작가와 친분에 따라 창작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강하게 보인다. 별다른 공적이 없는 일반 인물이거나 작가와 친분이 있었던 대상 또는 가족이 애도의 보편적인 대상으로 출현하게 된다. 애도문 창작의 공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죽음과 애도가 보편적인 창작 소재로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애도 행위 역시 점차 특정 인물만을 위한 특수한 사건이 아닌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대상으로 상정하게 된다. 죽음과 애도에 대한 고대인들의 감정구조는 바로 이 시기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전 작품을 통해 증명된다. 주변 인물을 애도한 작품으로는 조식(曹植)의 <왕중선뢰(王仲宣誄)>, 반악(潘岳)의 <하후상시뢰(夏侯常侍誄)>, 손작(孫綽)의 <빙사서군묘송(聘士徐君墓頌)>, 사령운(謝靈運)의 <노산혜원법사뢰(廬山慧遠法師誄)>, 안연지(顏延之)의 <도징사뢰(陶徵士誄)>, 왕승달(王僧達)의 <제안광록문(祭顏光祿文)>, 임방(任昉)의 <유선생부인묘지(劉先生夫人墓誌)>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을 애도한 작품으로는 조식의 <금호애사(金瓠哀辭)>, 유령한(劉令嫻)의 <제부문(祭夫文)>, 반악의 <양중무뢰(楊仲武誄)>, <애영서문(哀永逝文)>, <금록애사(金鹿哀辭)>, 왕준(王濬)의 <화방묘지명(華芳墓誌銘)> 등이 대표적이다.¹³⁾

공적인 인물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과는 달리 작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직계가족인 아내, 자녀, 장인 등이 그 대상으로 제시된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몇몇 작품을 살펴보자.

반악에 대해 유협은 “비에의 감정을 서술하는 데 정교했으며, 형식이 칭

13) 《문선》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은 米臻, <魏晉南北朝哀祭文情感與功用的新變>, 《浙江大學學報》第39期, 2017을 참조하였음.

신하면서도 내용의 알맞음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¹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반악은 다수의 애도문을 창작하였을뿐더러 슬픔의 감정을 배치하는데도 능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그가 지은 <하후상시퇴(夏侯常侍誄)>는 어려서부터 절친하게 지냈던 벗인 하후담(夏侯湛)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 전통적인 뇌문 창작 규범에 따라 칭양과 비애의 순차적 서술을 따르고 있으나¹⁵⁾ 함께 공유했던 과거 추억을 연상시키는 등 개인적 사건이 슬픔의 전제로 제시되는 특징을 보인다. 아래의 예문은 원문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옛날 함께 노닐던 때 돌아보나니 24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구나. 반백이 되어서도 함께 손잡고 놀았으니 그 즐거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리! 내가 예전에 앉아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했었지. “다수가 진실로 소수를 이긴다네. 사람들은 뛰어난 인물을 싫어하며, 속세는 풍치 있는 인사를 흥분다네.” (그대는) 임종 때 유언으로 조촐하게 장례를 치리라 하였으니 그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불후의 모범을 보였네. 그대 영구 실은 수레 바라보고 그대가 남긴 옷 보나니 마음 답답하여 소리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교차하며 떨어진다네. 그대를 위해 통곡하지 않는다면 누굴 위해 통곡하겠는가?¹⁶⁾

현실 속 작가가 “통곡”하는 이유는 과거 함께 시간을 공유했던 추억과 그가 생전 남긴 “유언”이 전제된다. 무엇보다 생전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이입시켜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은 두 사람의 친분을 보증하는 한편 뇌문 창작의 주된 목적이 행적의 선양이 아닌 비애의 서술에 초점이 놓였음을 말해준다.

14) “巧於序悲，易入新切.” 유협, 성기옥 역, 같은 책, 83쪽.

15) 유협은 뇌문의 전통적인 창작 규범으로 “영시이에중(榮始而哀終)”, 즉 문장을 시작할 때는 생전의 영광을 먼저 서술하지만 슬픔으로 끝맺는다고 제시한 바 있다.

16) “疇昔之遊，二紀於茲。班白攜手，何數如之。……居吾語汝，衆實勝寡。人惡雋異，俗疵文雅。……臨終遺誓，永錫爾類。……望子舊車，覽爾遺衣。幅爾失聲，迸涕交揮，非子爲慟，吾慟爲誰。”昭明太子, 《六臣註文選》, 北京: 中華書局, 2001, 1050-1053쪽.

이러한 사례는 “신분이 낮은 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위해 뇌문을 지을 수 없고, 어린 후배는 연장자를 위해 뇌문을 짓지 않는 것을 올바른 예의”로 인식했던 기존 뇌문 체계가 점차 실효성을 발휘하지 않게 된 변화상을 대변한다. 다시 왕승달의 <제안광록문(祭顏光祿文)>의 원문 일부를 살펴보자.

해를 넘기는 시간 동안 함께 유람하면서 딱 붙어 즐겁게 시간을 보냈었네. 봄바람 불어올 때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시도 썼었지. 가을 이슬이 채 맺히지 않았는데 그대의 혼 무형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네. 내일 새벽 수레를 몰아 그대의 옛 초가집 바라보며 길을 보았네. 마음 애통하여 눈물 줄줄 흘러나오니 여러 생각이 구름같이 어지럽게 뒤섞이는구나.¹⁷⁾

작가인 왕승달이 절친하게 지냈던 안연지가 사망하자 그를 애도하며 지은 것이다. 안연지는 왕승달보다 39세 연상이었으나 마음이 잘 맞는 지기였다. 상술한 반약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험이 “눈물 줄줄 흘러나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더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인 제문의 형식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에 있다. 즉 가계(家系)와 덕행의 서술을 선행한 후 비애가 서술되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 구성 방식이라면 여기서는 과거 공유된 시점과 비애의 서술로 내용이 이루어진다. 이 작품이 <<문선>>의 가장 마지막에 수록된 것도 기존 제문 체계의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애도문 고유의 양식을 파괴한 사례로 엄격한 격식을 추구했던 애도문이 서정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공적 기능이 약화된 변화상은 그 대상이 가족일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반약의 <애영서문(哀永逝文)>은 그의 죽은 아내 양씨(楊氏)를 애도한 것으로 작품 곳곳에서 상처(喪妻)한 자신의 심경을 직서(直敘)

17) “遊顧移年，契闊燕處。春風首時，爰談爰賦。秋露未凝，歸神太素。明發晨駕，瞻廬望路。心淒目泣，情條雲互。” 같은 책, 1125-1126쪽.

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래에서 원문 일부를 살펴보자.

상여 나가기 전날 밤 갖은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웠네. 대문 옆
용무늬 장식 상여를 세워두고 한탄하니 이제 영구를 장차 실으려 하는구
나. …… 화려하게 장식한 상여에서 떠나려 하니 말들은 고개를 돌리고 깃
발도 돌아서네. 차디찬 바람은 휘장으로 들어오고 무성한 구름은 수레 덮
개에 드리우네. 새들은 낮게 날아 숲을 잊은 듯하고 물고기는 고개를 들고
거품을 토해내니 물속에서 숨쉬기를 잊어버린 듯하다. 애통함에 걸음걸이
느려지고, 평소 길하다고 여겼던 길 따라가지만 흉한 길이 되어가네. 내 아
내 떠올려보지만 이미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자취를 바라보니 여전히 있는
듯하구나. 옛날 같은 길 걸었는데 지금은 생사로 갈라져, 과거 떠올리니 더
욱 슬픔이 더해지네. …… 이는 바깥 경물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실로 즐거
움과 슬픔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네. ……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이미 눈에 보이는 곳에는 그대
자취 없고 자나 깨나 꿈에서도 보이지 않네.¹⁸⁾

반약의 위 작품은 ‘불언내(不言內)’, 즉 아내의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던
전통 문인 사회에서 파격적이다. 상여 수레가 출발하기 직전의 혼란스러운
감정에서부터 비일상적인 경물 상태의 나열 및 꿈속에서 재회하길 바라는
심경 묘사 등 아내의 죽음으로 야기된 충격과 애통한 반응을 가감 없이
표현한다.

반약은 〈애영서문〉 외에도 〈도망시(悼亡詩)〉 3수를 지어 죽은 아내를
애도하면서 아내의 공식적인 호출 가능성을 열어준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도 동시대 문인 왕준의 〈화방묘지명(華芳墓誌銘)〉에도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애통한 심경이 담겨있으며, 임방의 〈유선생부인묘지(劉先生夫人墓

18) “啟夕兮宵興，悲絕緒兮莫承。俄龍輻兮門側，嗟俟時兮將升。……去華輦兮初
邁，馬迴首兮旋旆。風泠泠兮入帷，雲霏霏兮承蓋。鳥俯翼兮忘林，魚仰沫兮失瀨。
悵悵兮遲遲，遵吉路兮凶歸。思其人兮已滅，覽餘跡兮未夷。昔同塗兮今異世，憶
舊歡兮增新悲。……匪外物兮或改，固歡哀兮情換。……是乎非乎何皇？趣一遇
兮目中。既遇目兮無兆，曾寤寐兮弗夢。” 같은 책, 1066-1068쪽.

誌)》에도 남조 유학자인 유선생 아내의 죽음이 애도 되고 있다. 내용 대부분 전형적인 여성 칭양(稱揚)의 사례가 나열되는 것이 사실이나, 일반 가정의 부녀가 공개적인 서정의 대상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아내라는 제재의 출현은 애도문의 공적 기능의 약화를 실증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이의 죽음을 대면한 슬픔이 인간 일반의 자연스러운 감정 발현이라 받아들여졌던 고대인들의 감정구조를 반영한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 한위육조의 애도문이 표명한 공적 기능의 약화가 애도 대상의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진 남북조시기 흥성한 서정 문학 풍조의 협업과 더불어 애도문을 대하는 고대인들의 감정구조가 실용과 관습의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직접적인 변화와 다양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Ⅲ. 개인 주체성의 부각

한위육조 시대 애도문 창작의 또 다른 특징은 후대로 갈수록 애도 주체인 작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주도된다는 점이다. 창작자에게 요구되었던 엄격한 신분 규율과 애도 대상별로 나뉘었던 문체 양식 내지 일정한 문장 구성 양식을 따라야 했던 창작 규범 등의 경계가 모호해지자 망자에 대한 품평 기준과 슬픔 유발의 전제 등의 중심 요소가 창작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어가는 경향을 내비친다.

서진 지우(摯虞)가 《문장유별론》에서 언급한 애도 문체별 특성은 변화한 애도문 창작 실상을 잘 대변한다. 일례로 허신(許愼)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뇌(誄)는 시호이다.”라 정의하며 뇌와 시호의 유착 관계

를 강하게 표명했다면, 그는 뇌문에 대해 “시(詩)·송(頌)·잠(箴)·명(銘)은 모두 옛날에 문체가 이루어져 그것에 의지하여 글을 지을 수 있었지만, 오직 뇌(誄)는 정해진 규칙이 없었으므로 작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전적(典籍)에 보이는 것으로는 《좌전(左傳)》에 실린 노(魯) 애공(哀公)이 공자를 위해 지은 뇌문뿐이다.”라 하며 애도문 창작의 변화상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정해진 규칙이 없었다.”라는 것은 뇌문과 시호가 분리되기 시작한 위진 이후 시기의 뇌문을 이룬 것이다.¹⁹⁾ 즉 지우는 뇌문 체제의 격식에 부합한 〈공자뢰〉와 위진 남북조에 창작된 뇌문을 동일선상에 두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당시 문인들 또한 한위육조 애도문 창작의 변화상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의미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애도문 창작에 대한 엄격한 규범은 남북조의 유희에 의해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다. “정해진 규칙이 없었던” 위진 남북조 애도문의 존립 양상이 유희에 의해 재정리되었다. 그는 각 문체의 기원과 더불어 이상적인 창작 구조를 제시하는 동시에 특정 작가의 작품을 폄평하며 당인들이 추구해야 할 애도문 창작의 방향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동안 모호한 위치에 놓인 채 존립해온 애도문이 유희에 의해 체계화되면서 그 위상이 제고되는 한편 이는 훗날 애도문장의 과도한 형식화 또는 관습화를 유도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진 남북조의 애도문 창작 실태를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엄격한 창작 규범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 부분 발견된다. 그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진 남북조라는 유례없는 혼란한 사회상과 그에 따른 자율적인 창작 환경이 보장된 속에서 특정한 문학 규범과 이론이 단기간에 폭넓게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한위육조의 애도문은 여러 특수한 환경 조건을 거치면서 문체론적 출현과는 별도로 작가 개인의 주체성이 강하게 발현되는 흐름 양상

19) “詩頌箴銘之篇，皆有往古成文，可放依而作。惟誄無定制，故作者多異焉。見于典籍者，左傳有魯哀公爲孔誄子。” 이수정, 《唐代 哀悼詩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42-43쪽 참조.

을 보이게 된다. 이는 곧 공적인 영역과 강한 유착을 보였던 애도의 주체를 사적인 영역으로 유입시키려던 당시 문인들의 변화된 감정구조를 반영한다.

이러한 작가의 주체성은 특정한 목적 아래 활용되었던 애도문 양식이 다른 유사 양식과 결합 또는 단순화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기존 애도 문체에 부여된 엄격한 규범이 개인 애도의 장으로 영입되면서 문체 고유의 기능 상당이 자연스레 상실되는 것이다. 즉 뇌문과 조문 또는 뇌문과 애사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양상 또한 한위육조 애도문 창작의 변화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안연지(顔延之)의 <도징사뢰(陶徵士誄)>는 도연명(陶淵明)의 죽음을 추모한 뇌문이다. 전통적인 뇌문이 시호를 내리기 위한 문체로서 사망일과 가계를 나열하는 순으로 내용을 시작한다면, 위 작품에서는 신상 정보를 전달하는 대신 망자의 생전 행적과 비애가 작가의 주체적인 성향에 따라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 생전의 영광을 문장 전반에 제시하고 비애를 후반에 서술한다는 “영시이애중”의 뇌문 창작 요지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된다. 무엇보다 뇌문은 일반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뇌문을 짓지 못한다던가 또는 연장자를 위해 뇌문을 짓는 것을 지나치게 꺼렸으나, 안연지는 그보다 19살 연상인 도연명에게 시호를 내리는 주체로 등장하며 그에 따른 정당성을 서술한다. 아래의 원문 일부를 보자.

무릇 삶의 실체는 뇌문으로 빛나게 되며 명성은 시호로 높아지게 된다. 만약 그 사람이 덕과 의의 기준에 맞는다면 귀함과 천함을 따질 필요가 무어 있겠는가! 관대하고 긍정적이면서 선한 삶을 살다 갔으며, 청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지조는 시법(諡法)에 부합할뿐더러 전대의 기록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 벗에게 자문하여 정절징사(靖節徵士)라 시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아아, 슬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과거의 그대를 추모하며 오랜 정으로 죽음을 애도한다. 그대가 홀로 지내고 내가 한가할 때 그대와의 관계도 화목하여 가까운 이웃처럼 서로 왕래했었지. 밤에는 각처를 돌아다니고 낮에는 쉬었으니 배를 타

거나 수레를 몬 것도 아니었네. 옛날 은혜를 다 하는 연회를 떠올려보니
슬잔 들고 서로 권계했었네. …… 그대에게 이 ‘정절’이라는 시호를 표창하
나니 ‘강(康)’이나 ‘혜(惠)’의 현인들의 존호보다 뛰어나리. 아아, 슬프구
나!²⁰⁾

전대 사람들에게 공인되던 “덕과 의의 기준에 맞는다면” 시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뇌문을 “높은 신분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창작하지 않았던 시대상과 애도문을 대하는 당인들의 변화된 감정구조를 반영한다. “여러 벗에게 자문”한다는 구절은 다수의 공동체를 동원하여 망자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로, 시호를 내리는 주체가 작가 자신임과 동시에 “시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수임을 드러낸 것이다. 기존 뇌문이 특정 계층의 신분에 의해 인증된 문서였다면 점차 일반 계층의 다수가 시호 부여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대상이자 주체로 출현하면서 뇌문 고유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망자와 작가가 함께 공유했던 과거의 추억이 슬픔의 전제로 제시되는 점도 주목된다. 온전히 고인의 덕행을 묘사하는 것을 뇌문 창작의 본질로 보았던 과거와 달리²¹⁾ 작가는 생전 망자와 함께했던 특정 시점을 슬픔의 전제로 삼고 있으며 그 역시 사소한 일상의 재현에 국한된다. 그렇다면 작가가 뇌문 문체를 활용한 것은 표면상 망자의 불후한 가치를 선양코자 시호를 내리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으나, 기존 규범을 탈피함으로써 한 시대를 함께 공유했던 벗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그 슬픔을 주변인에게 선전하려는 의도에 더 큰 초점이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애도문을 일상적 소재로 인식하면서 작가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재구성된 사례가 된다.

20) “夫實以誄華，名由諡高。苟允德義，貴賤何算焉。若其寬樂令終之美，好廉克己之操，有合諡典，無愆前志，故詢諸友好，宜諡曰靖節徵士。……嗚呼哀哉！深心追往，遠情逐化。自爾介居，及我多暇。伊好之洽，接閭鄰舍。宵盤晝憩，非舟非駕。念昔宴私，舉觴相誨。……旌此靖節，加彼康惠。嗚呼哀哉！”昭明太子，같은 책, 106-1963쪽.

21) 일례로 유희은 조식이 <문황퇴>의 말미에서 자신의 처지를 서술한 것을 “뇌의 본질에 크게 벗어난 것”이라 하며 비판을 가하였다.

육기(陸機)의 〈조위무제문(吊魏武帝文)〉도 작가 개인의 주체성에 따라 내용이 구성된다. 조조(曹操)의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상술한 안연지의 작품이 동시대의 주변인을 애도했다면 이 작품은 애도 대상이 선현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실제적인 대면 경험이 없으며 창작 동인도 조조가 남긴 유명(遺命)이다. 따라서 일견 선왕의 업적과 덕망을 칭송한 ‘송찬(頌讚)’의 부류로 판단할 여지도 없지 않지만, 내용의 초점이 병사(病死)한 인간 일반의 모습에 맞춰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원문의 일부를 보자.

호경을 지나다 병에 걸린 듯하더니, 위수 가에 임하여 의심스럽게 되었네. 다음날이면 병이 나올 것 같았는데, 40일이 지나 재앙이 되었네. …… 지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위중하여 입은 다물고 계셨으나 근심은 끝이 없으셨네. 몸만 겨우 의지한 채 어려운 일 기다리시며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긴말을 남기셨네. 네 아들을 어루만지시며 깊은 생각에 빠지고 몸을 따라 슬퍼하시네. 혼백이 아직 떠나기 전에 남은 숨에 의지해 유명을 남기셨네. 딸들을 부여잡고 얼굴 찡그리며 슬퍼하시고 아들 표(豹)를 가리키며 눈물 흘리셨네. 홀쩍이느라 숨이 옷깃에 닿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네. 나라를 뒤로한 채 영면에 빠지시니 하늘만큼 큰 기상이 관 안에 잠들었네. …… 살뜰히 가정 안 살피신 것 애석하고, 상세히 유명을 남기신 것 탄식하네.²²⁾

발췌한 예문은 망자가 병에 걸리게 된 과정과 임종 직전 유명을 남긴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여기서는 가족의 죽음을 대면한 애도 주체의 비애를 서술하는 대신 죽음을 목전에 둔 망자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반응을 세밀하게 표현한다. 어린 자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버로서의 근심이 “얼굴 찡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행위로 나타나며 무엇보다 “홀쩍이느라 숨이 옷깃에 닿았다.”라는 구절은 임종 직전 침상에 누

22) “逾鎬京而不豫，臨渭濱而有疑。冀翌日之雲瘳，彌四旬而成災。……迄在茲而蒙昧，慮噤閉而無端。委軀命以待難，痛沒世而永言。撫四子以深念，循膚體而頽歎。迨營魄之未離，假餘息乎音翰。執姬女以嗔啐，指季豹而濯焉。氣沖襟以嗚咽，涕垂睫而洑瀾。違率土以淸寐，戢彌天乎一棺。……惜內顧之纏綿，恨末命之微詳。” 같은 책, 1118-1122쪽.

워 죽음을 기다리는 망자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남은 자와 떠나는 자의 애통함을 체감케 유도하여 독자의 슬픔을 배가한다. 또한 작품 후반에서 작가는 “꿈꿈히 가정 안 살피신 것 애석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죽음 앞에서 가족을 살뜰히 챙겼던 망자의 모습을 재차 재현한다.

일반적으로 왕족의 죽음이 가공송덕(歌功頌德)을 통한 형식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왔던 것은, 망자 신분의 특수성과 그에 부여된 선양의 목적이 강하게 작용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시한 작품은 임종을 목전에 둔 망자의 복잡한 심리와 이를 바라보는 애도자의 슬픔이라는 인간 일반의 반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차별성을 보이며 더욱이 가족에 대한 사적인 요소가 슬픔을 유발하는 대표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애도문 창작에 있어 특정 신분에 부여된 격식만을 따르지 않고 나뉠의 주체적인 애도 관점에 따라 내용을 조직했던 당시 문인들의 감정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그 변천의 일단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며, 왕족의 애도가 반드시 관습과 형식의 제한된 영역에서만 논의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말해주는 단서가 된다.

이와 유사하게 임방(任昉)의 <제경릉문선왕행장(齊竟陵文宣王行狀)>도 문선왕 소자량(蕭子良)이라는 왕족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지만 전통적인 격식과 내용 체제를 달리하면서 그 변화상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된다. 이 글은 망자의 시호를 청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상술한 작품들과 달리 덕행과 인품 서술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비애의 초점이 35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된 상황과 인재 상실이라는 현실적인 요인에 맞춰지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자.

하늘은 현능한 이를 남기려 하지 않았으니 대들보 꺾이고 태산도 무너지게 되었네. 모년 모일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 나이 35세였네. …… 이 때문에 성문에는 통곡하는 소리 가득했고 장락궁에도 슬퍼하는 소리 충만했네. 어찌 절구질하는 사람들이 박자 맞추는 소리 내지 않고 거리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 것에 그쳤겠는가! …… 하늘은 현능한 이를 남기려 하지 않

아 홀연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슬픔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듯 마음속을 진동시켰네.²³⁾

요절한 인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작가의 심경은 “하늘은 현능한 이를 남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의 반복 재생을 통해 나타나며 그에 대한 비애의 반응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작가의 신체적 충격과 더불어 성문과 장락궁, 시정 사람들 등 불특정 다수의 대응을 통해 강조된다. 장편으로 구성된 위 작품에서 비애의 서술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인명 상실을 대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이 내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상술한 작품들을 통해 한위육조 애도문은 후대로 갈수록 작가 개인의 주체성에 따라 내용과 체제가 조직되는 등 비교적 자율적인 창작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의례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던 뇌문의 활용상과 왕족에 대한 애도 구성 방식의 변화는 애도와 죽음을 대하는 고대 문인들의 감정구조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된 감정구조는 애도문이 결코 실용과 관습이라는 정체된 영역 속에 머물러있지 않았으며 인간 감정의 변천에 따라 전진해갔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IV. 죽음과 애도 관념의 다양화

한위육조 애도문 변천에서 포착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은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고대인들의 감정구조와 그 변화의 흐름이다. 현전하는 초기 애도문 양식인 매지권, 진묘문, 진묘석, 고지책 등이 증명하듯 이른 시기 고

23) “天不憊遺，梁嶽頽峻。某年某月日薨，春秋三十有五。……故以慟極津門，感充長樂。豈徒春人不相，傾軛罷肆而已哉。……天不憊遺，奄見薨落。哀慕抽割，震動於厥心。” 같은 책, 1107-1116쪽.

대인들의 인식 속 죽음과 애도는 망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죽음은 사후세계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산자는 망자의 안락한 사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애도를 위시한 각종 문서를 제작하였다. 혼(魂)과 달리 백(魄)은 지하에 남아 살아생전과 같은 삶을 영위한다는 영혼불멸(靈魂不滅)의 인식이 남긴 결과물이었다.

저승을 이승의 연장으로 보았던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의 죽음관은 조조의 금비령을 기점으로 약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죽음의 직접적인 언급에 소극적이었던 유가 사상이 문인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하면서 죽음과 애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생에 초점이 맞춰진 사회 이념의 영향 아래 죽음과 애도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주목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비주류 범주에 놓였던 죽음과 애도는 한대에 이르러 조금씩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유교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초기 애도문은 ‘불후(不朽)’와 ‘영(榮)’을 위시한 죽음과 애도가 중심이 된다. 공익을 위한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존재의 불후가 보장되었다. 그에 따라 타인의 죽음을 대면한 당인들은 죽음을 비애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대신 그 죽음의 가치를 제고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과정을 이상적인 애도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 속에서 칭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애가 뒷순위로 밀린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런데 한대의 애도문에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당인들의 인식이 애도의 한 부분으로 표면화되어있다. 죽음과 명예를 동일 범주에서 논의하여 망자의 위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이상향을 문장에 직접 제시하면서 이를 공적인 영역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아래의 예문은 동한 조식의 <왕중선퇴(王仲宣誄)> 후반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고개를 빼고 탄식하나니 눈물이 비 오듯 떨어져 목까지 흘러내리네. 아야, 그대여! 명계에서 영원히 안녕하시길. 그 누가 죽지 않겠는가?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명예를 위해 죽는 법이니, 살아서 영광스럽고 죽어서 애도 받는다면 또한 큰 영광이 아니겠는가. 아아, 슬프구나!²⁴⁾

왕찬(王粲)은 생전 조식과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마흔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요절하였다. 이 작품에는 짧은 생을 마감했으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망자의 덕행이 서술되지만, 내용 곳곳에 두 사람의 우정이 강조되면서 벗의 죽음을 대면한 애도자의 깊은 슬픔이 전해진다. 제시한 예문은 바로 애도 주체의 애도 반응으로 눈물이 설 새 없이 흐르는 자화상의 묘사로 시작된다. 이는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서 다시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명예를 위해 죽는다.”, “살아서 영광스럽고 죽어서 애도 받는다면 또한 큰 영광이다.”라는 구절이 제시되면서 불후와 영광이 중심이 된 애도가 이루어진다. 죽음은 존재의 상실로서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이 과거 누적된 덕행으로 공익을 담보하고 불후의 가치를 영위하는 상징성을 갖는다면 이는 “영광스러운 죽음”의 반열에 영입시킬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한 인물의 죽음이 슬픔이라는 일차원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 맞춰졌음을 알 수 있다.

동한 채옹의 <곽유도비문(郭有道碑文)>에도 유사한 관점이 보인다. 아래의 예문은 원문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하늘이 내려주신 명이 길지 않아 향년 42세 건녕 2월 정월 을해에 사망 하셨습니다. 나와 더불어 그대를 공경했던 사방의 사람들은 긴 시간 애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 기탁 할 곳이 없어 함께 선생의 덕망을 떠올리다 불후의 일을 세우기로 하였다. 우리는 모두 옛 현인들이 세상을 떠났으나 그 명성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서술된 비문에 의지했기 때문이라 여겼다. 따라서 지금 어찌 선생의 예를 잃게 둘 수 있겠는가! 이에 비를 세우고 묘를 드러내 그 덕행을 밝게 빛내어 덕행을 후세에 전해지게 하고 명

24) “延首歎息，雨泣交頤，嗟乎夫子！永安幽冥，人誰不沒？達土徇名，生榮死哀，亦孔之榮。嗚呼哀哉！” 같은 책, 1042-1045쪽.

성을 끝없이 드러나게 하리라. …… 하늘이 내려주신 명이 길지 않아 백성들은 슬퍼하며 애도하였네. 이에 비석에 명을 새겨 그 빛나는 영광을 전하리라. 아아, 후인들은 이를 규범으로 받아들여 본받기를.²⁵⁾

예시한 작품은 비문으로, 비문을 창작하게 된 계기가 내용이 중심이 된다. 조식의 작품과 달리 채옹이 곽유도의 비문을 창작한 동인은 개인적 친분에서 비롯되지 않아 비애의 서술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친소 관계가 배제됨으로써 타인의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문인들의 일반적인 감정구조가 더욱 잘 드러난다. 여기서의 작가를 비롯하여 망자를 “공경했던 사방의 사람들”이 애도 주체로 출현한다. 이들이 “긴 시간 애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 기탁 할 곳이 없게” 된 상황은 “비를 세우고 묘를 드러내” 망자의 덕행을 선양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애도의 방식이 슬픔이라는 감정 표출보다는 불후를 모색하는 방향에 초점이 놓이면서 과도한 슬픔 반응은 배제되고 망자의 생전 행적이 후인들에게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길 기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공익의 범주에서 죽음과 애도가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대에 창작된 애도문이 유가 이념의 영향 아래 불후와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죽음과 애도를 바라봤다면 한대 이후에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문인들의 감정구조도 다양화하게 된다. 이를테면 유한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가 인문 정신의 발흥과 더불어 중요한 논제로 떠오르면서 공익보다는 개인의 감정이, 망자보다는 산자에 초점이 맞춰진 애도 글쓰기가 일반화되기 시작하거나, 또는 삶과 죽음의 단절이 슬픔 유발의 주요 전제이자 작품 전체의 정조를 담당하는 경향이 강조되는 등 죽음과 애도에 대한 관념도 다채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아래에서 몇몇 예시를 통

25) “稟命不融，享年四十有二，以建寧二年正月乙亥卒。凡我四方同好之人，永懷哀悼，靡所寘念。乃相與惟先生之德，以謀不朽之事。僉以爲先民即沒，而德音猶存者，亦賴之於見述也。今其如何而闕斯禮！於是樹碑表墓，昭銘景行，俾芳烈奮於百世，令問顯於無窮。……降年不永，民斯悲悼。爰勒茲銘，攜其光耀。嗟尔來世，是則是效。” 같은 책, 1074-1075쪽.

해 살펴보자.

먼저 남조 안연지의 〈송문황제원황후애책문(宋文皇帝元皇后哀策文)〉을 보자. 이 작품은 송 문제(文帝) 유의룡(劉義隆)의 비(妃)가 36세의 나이로 병사하게 되자 안연지에게 짓도록 한 애도문이다. 표면상 “황후의 생전 덕행을 나열하여 슬픈 마음을 서술한다(累德述懷)”라는 서술 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망자뿐만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애도 주체의 심경까지 고려된 서술이 이루어진다. 아래는 해당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살아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망자를 애도하며 오늘의 (슬픔을) 느끼며 옛 시절을 회고하네. …… 고을과 들판은 무성했던 빛을 잃어버리고 이민족과 중원 사람들은 큰 소리 내며 눈물 흘리네. 과거 아름다운 행적 서술할 만 한데 아득히 떠나버린 영구치는 잡을 수가 없구나. 아아, 슬프구나!²⁶⁾

장편의 내용 중 “살아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망자를 애도하며 오늘의 (슬픔을) 느끼며 옛 시절을 회고한다.(撫存悼亡, 感今懷昔.)”라는 여덟 글자의 말은 문체가 친히 덧붙인 것으로, 황후의 죽음에 대한 황제의 정서 반응이다. 슬픔의 의도적인 표출이나 생전 덕망을 재현하려는 기존 관념을 좇는 대신 “살아있는 이들을 위로한다.”라는 구절로써 애도 주체의 반응에 유의한 것은, 죽음과 애도의 논의가 점차 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던 당인들의 감정구조를 반영한다. 이는 곧 망자의 불후함과 영광을 선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죽음과 애도 관념이 애도자의 심경을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전진해갔음을 의미했다.

이와 더불어 한대 이후의 애도문에는 삶과 죽음을 단절된 것으로 보았던 생사이로(生死異路)의 관념이 의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죽음과 애도의 변화된 관점을 대변한다. 관계의 절대적 단절이 슬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자 애도문 창작의 주요 동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26) “撫存悼亡, 感今懷昔. …… 邑野淪藹, 戎夏悲歡, 來芳可述, 往駕弗援, 嗚呼哀哉!” 같은 책, 1068-1071쪽.

대표적으로 반악의 〈양형주뢰(楊荊州誄)〉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반악이 장인인 양형주의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망자의 행적을 선양하는 내용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생사이로의 단절로 인한 비애감이 직접적인 창작 계기이자 전체적인 정조를 형성해주는 면에서 주목된다. 해당 원문 일부를 살펴보자.

하늘이 내려주신 수명 길지 않아 검은 머리 하얗게 되기 전에 한을 머금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 운명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아아, 슬프구나! 자고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기 마련인데, 몸은 사라져도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옛 현인들이 옳다고 여겼었네. …… 부고 소식 전해 들으니 그 슬픔에 눈물이 옷깃을 다 적셨네. 어찌 친상(親喪)에 집 돌아가는 것 잊었겠는가? 수심으로 인한 병세가 심하여 찾아뵙지 못하였네. 그대 와병 중에도 찾아뵙지 못하였는데 떠나가시는 길에도 찾아뵙지 못하게 되었구나. 큰 소리로 통곡하니 애통함이 더해져 슬픔에 울림이 남게 되었네. 아아, 슬프구나!²⁷⁾

여기서는 “자고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라는 구절이 생사이로의 관념을 대변한다. 물론 이러한 생사의 단절로 인한 슬픔은 한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특징은 아니다. 과거 조식 또한 〈왕중선뢰〉에서 “그 누가 죽지 않겠는가(人誰不沒)”의 구절을 통해 생사의 단절과 그에 따른 슬픔을 서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식의 작품이 단절로 인한 애통함을 생전 덕행과 연결 지어 불후와 영광의 전제로 제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면 반악은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그로 유발된 슬픔의 정조를 작품 전체에서 드러낸다. 와병으로 끝내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한 채 단절된 관계는 “큰소리로 통곡”하며 애통함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도 반악은 〈애영서문〉의 제목을 통해 생사의 단절을 직접적으로

27) “降年不永，玄首未華。銜恨沒世，命也奈何！嗚呼哀哉！自古在昔，有生必死。身沒名垂，先哲所趨。……承諱切怛，涕淚霑襟，豈忘載奔？憂病是沈，在疾不省，於亡不臨，舉聲增慟，哀有餘音。嗚呼哀哉！” 같은 책, 1045-1048쪽.

표하였으며, <양형주뢰>에서는 “무덤에 이르러 그대와 영원히 이별하고 관을 어루만지며 슬픔을 다하였네.”라는 구절로써 유사한 죽음과 애도 관념을 내비친다.

한편 한대 이후 죽음과 애도의 변화된 관점은 불특정인의 죽음을 대하는 당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혜련의 <제고총문(祭古冢文)>을 들 수 있다. 사혜련은 당시 송 무제의 넷째 아들인 유의강(劉義康)의 법조참군(法曹參軍) 직을 맡고 있었는데 동부성(東府省)을 보수하다가 옛 무덤을 발견하자 이들을 이장(移葬)한 후 명을 받아 이 작품을 짓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되지 않은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이 드러나며 공손히 제사를 치러주는 모습도 함께 묘사된다. 원문 일부를 살펴보자.

한쪽 관이 이미 열렸는데 두 개의 관이 그곳에 있었다. (이를 본 후) 삼태기 버려두고 슬퍼했으며 삼 내팽개치고 눈물 줄줄 흘렸네. …… 관 양 끝을 매만지니 여러 생각이 떠오르고 부장된 토우 어루만지니 슬픔은 더해졌네. …… 무덤구덩이는 새로 판 것이지만 관은 여전히 옛 나무였네. 부부의 합장은 옛날부터 전해진 것은 아니고 주공 때 존재하게 되었다. 옛날의 뜻을 존중하여 부부의 두 혼을 함께 묻었다.²⁸⁾

관을 발견한 시점과 그에 대한 비애의 신체적 반응이 묘사되며 부장된 물품을 소중히 다루고 예법에 따라 시신을 재매장하는 장면이 내용의 중심이 된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제문을 짓고 제를 올리는 모습은 망자에 대한 애도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전유물이 아닌 점차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되어갔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인간에 대한 생명 존중 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이 또한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고대인들 감정구조의 변화 일단을 엿볼 수 있

28) “一槨即啓，雙棺在茲。舍畚淒愴，縱錘漣而。……循題興念，撫俑增哀。……壙即新營，棺仍舊木。合葬非古，周公所存。敬遵昔義，還祔雙魂。” 같은 책, 1122-1124쪽.

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 한위육조 애도문에 나타난 고대인들의 죽음과 애도의 관념이 일관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초기 한대의 애도문이 망자의 생전 삶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점차 산자의 입장에서 죽음과 애도가 다양하게 논의되는 추세로 전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고대 문인들의 감정구조 역시 변화하고 다양화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실을 반증한다.

V. 결론

고대 중국에서 죽음과 애도의 논의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던 유가 이념의 영향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존립해왔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수많은 애도문 창작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용과 관습의 역할만이 강조되자 애도문 변천의 구체적인 실상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죽음이 인간의 실존을 증명해주는 대상이자 모든 생명체가 필연적으로 나아가게 될 미지의 공간이라면 이는 시대와 인종을 막론하고 언제나 중요한 논제가 되어왔으며 타자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 보이는 애도 행위 또한 미지의 공간을 극복하고 대처하려는 방편으로 제시되어왔다. 이때 애도는 시대 대부분에서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자의 감정 반응과 진혼(鎮魂)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슬픔의 표출 양상, 진혼의 방식, 칭양의 정도 등은 시대와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당연하게도 애도의 산물인 애도문도 단일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죽음과 애도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이 변화해가는 구도 속에 놓여있음을 추측 가능케 하며, 따라서 이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가진 애도문을 분석할 때 고대인들의 다양화된

감정구조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즉 본 논문은 한위육조 애도문의 분석이 고대 중국인들의 감정구조 변천의 일면을 파악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가정 아래 기획되었다.

그 결과 이는 일차적으로 애도문 창작의 변화상을 탐색하는 작업이면서, 더 중요하게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죽음과 애도를 대면한 고대인들의 감정구조, 다시 말해 시대별로 공동체가 공유했던 감정구조의 실상과 그 변화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른 한위육조 애도문에 나타난 감정구조의 변화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적 기능의 약화이다. 초기 애도문은 유가 이념의 영향 아래 공적인 인물만이 애도의 대상으로 설정되었으나 위진 남북조에 이르면 개인의 영역에서 애도문 창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개인 주체성의 부각이다. 애도문은 위진에 이르러 그 창작 규범이 재차 강조되지만, 실제 창작 사례를 살펴보면 내용과 표현 및 애도 양식의 채택이 작가의 주체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죽음과 애도 관념의 다양화이다. 한대 이전에는 불후와 영광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죽음과 애도가 주로 논의되었다면 점차 산자의 관점에서 죽음을 인식하고 애도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시도된다.

결과적으로 한위육조 애도문 변천을 통해 도출된 사례들을 통해 애도문이 실용과 관습이라는 영역 속에 정체된 것이 아닌, 시대별로 끊임없이 다양화되는 변화의 영역에 놓여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곧 죽음과 애도를 대하는 고대 중국 문인들의 감정구조 일면을 반영하면서 애도문의 문화사적 의미까지 도출해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김학주, 《(새로 옮긴) 시경》, 서울: 명문당, 2010.
- 레이먼드 윌리엄즈, 설준규, 송승철 역, 《문화사회학》, 서울: 까치, 1984.
- 레이먼드 윌리엄즈,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파주: 문학동네, 2007.
- 소통, 김영문, 김영식, 양중석, 염정삼, 강민호 역, 《문선역주》, 서울: 소
명출판, 2010.
- 유협, 성기옥 역, 《문심조룡》,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 이수정, 《唐代 哀悼詩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신민야, 〈元稹 悼亡詩의 표현기법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77집, 2012.
- 양진성, 〈梁代 奉勅撰墓誌를 통해 본 墓誌銘의 定型化-墓誌에 등장하는
王言文書 運營方式의 分析을 兼하여〉, 《中國史研究》 제105집,
2016.
- 유혜영, 〈죽음에 대한 문학적 관조-위진 만가시의 특성과 문학적 의의〉,
《중국문화연구》 제12집, 2008.
- 윤재석, 〈중국 고대 『死者의 書』와 漢代人의 來世觀-告地策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86집, 2014.
- 이성구, 〈漢代의 死後世界觀〉, 《중국고중세사연구》 제38집.
- 이수정, 〈고대 중국의 가족 서사와 변화된 감정구조〉, 《중국학》 제84집,
2023.
- 주기평, 〈中國 挽歌詩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한 一考察〉, 《中國文學》
제60집, 2009.
- 주기평, 〈한·중 悼亡詩의 서술방식과 상징체계〉, 《大東漢文學》 제32집,
2010.
- 주기평, 〈中國 歷代 悼亡詩歌의 社會文化的 배경과 文學藝術의 특징 연구〉,
《中國文學》 제96집, 2018.
- 昭明太子, 《六臣註文選》, 北京: 中華書局, 2001.

米臻, 〈魏晉南北朝哀祭文情感與功用的新變〉, 《浙江大學學報》 第39期, 2017.

張寧, 〈試探魏晉南北朝重要文論作品與誄文之關係〉, 《吉林廣播電視大學學報》 第12期, 2012.

<Abstract>

In the ancient China, the discussion about death and mourning began at quite early period. But it is something lacking in the point of people's attention, due to the influence of confucian ideology, not mentioning in direct way. Although numerous mourning works have been created in various way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s developmental history has been neglected by the emphasis on practicality and social custom. Thus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stems from these reason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structure of feelings shown in the mourning works of Han wei and six dynasties(漢魏六朝) can be categorized as following.

The first phase is its weakness in the point of public function. Considering the early mourning works, only public figures were shown as the objects of mourning under the banner of confucian ideology. But, in the case of the Wei jin nan bei chao period, the mourning works began to appear in the personal realm also.

The second phase is in the emphasis on individual identity. Although re-emphasizing certain norms in their creation. Wei jin nan bei chao dynasties has shown the author's subjectivity in the content and expression of those works.

The third phase is the diversification in the concept of death and mourning. In the case of the previous periods of Han dynasty, the theme of death and mourning had been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benefit for eternal honor. But, the efforts diversifying the theme of mourning and recognizing the death in the viewpoint of the living people had been initiated.

In conclusion, it was discovered that the mourning works in the Han wei and six dynasties also showed the field of constant change, not sticking to the two points of practicality and social custom.

Key Words : 한위육조(Han wei and the six dynasties), 애도문(Mourning works),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s),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문선(Wen xuan)